

## 새빛캠, 한국전구체와 전구체복합액 10년 장기 공급계약 체결

- ▶ LG화학과 캠코 합작사인 '한국전구체'에 전구체복합액 2024년부터 10년간 공급
- ▶ 2026년부터 매년 전기차 4만대 분량 전구체복합액 약 3만톤 공급→중장기 성장엔진 장착

[2023-08-10] 새빛캠이 2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대규모 장기계약을 성사시켰다.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기업 새빛캠(107600, 대표이사 박민규)은 한국전구체 주식회사(대표 최제임스 성)와 2차전지용 전구체복합액 공급관련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식 발표했다. 한국전구체는 LG 화학과 고려아연의 계열사 캠코가 설립한 합작사로 2차전지용 전구체 밸류체인상의 핵심 회사다.**

이번 본계약은 지난해 6월 체결한 양사의 MOU(전략적 제휴 양해각서) 협의사항을 기초로 하며 2024년부터 약 10년간 새빛캠이 단계적 증량을 통해 2026년부터 메탈기준 연간 3,700톤 이상을 공급하며, 전기차 4만대 분량의 전구체복합액 등 2차전지용 리사이클링 핵심소재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새빛캠 회사관계자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당시 투자자에게 약속한 전구체복합액 대규모 공급을 성사시켜 기쁘다” 며 “업계최고수준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역량기반 안정적인 리사이클링 원료공급에 회사 역량을 총 집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빛캠은 2024년 초도물량 공급을 시작으로 2026년 양산물량 본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장에 설비 자동화를 통한 연간 1만톤 규모의 전구체복합액 생산 케파를 확보하였고 3공장 신축으로 기존 케파보다 3배이상 증설할 계획이다.

실제로 새빛캠이 생산하는 전구체복합액은 액상 상태로 공급돼 고객사 입장에선 공정 간소화의 장점이 있고, 다단침출기술의 높은 회수율과 튜닝 공정을 통한 고객 맞춤 제품 생산으로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갖추면서 대규모 공급에 대한 대응체제를 높여왔다.

이에 대해 박민규 새빛캠 대표이사는 “금번 한국전구체와의 10년 장기 공급계약으로 성장가속화를 위한 중장기 성장엔진과 기업가치 제고의 토대를 마련한만큼 주주와 지속해서 성장 결실을 나눌 수 있도록 경주할 것” 이라며 “향후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자원순환 체계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



1. 참고 사진 자료

'새빛캠 - 한국전구체' 2차전지 전구체 복합액 공급 본계약 체결 사진

사진설명 : 한국전구체 대표 최제임스성(좌측)과 새빛캠 대표 박민규(우측)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